

죽음을
이야기하는
98개의 이미지

애도하는 미술

박영택

잔인한
시간의 승리 앞에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을
안쓰럽게 추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기 위해
이미지는 필요했다.

마음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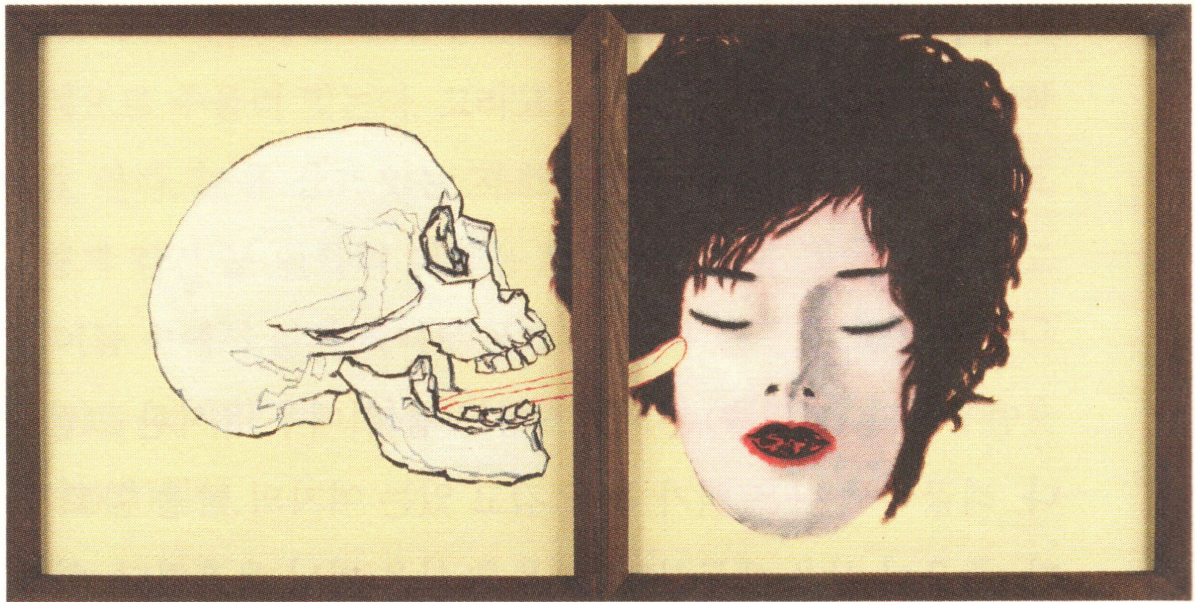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안창홍 <입맞춤>

안창홍의 <입맞춤>은 이일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한 그림이다. 해골에서 나온 혀가 눈을 감고 있는 여자의 뺨을 핥고 있다. 죽음의 삶을 애무한다. 죽음은 삶을 마냥 유혹한다. 하루도 쉬지 않고 껌가에 붙어서 속삭인다. 삶은 죽음의 유혹에 무방비다. 속수무책이다. 해골의 혀가 관능적인 여자의 얼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길고 딱딱해진 혀를 여자의 귓구멍 속으로 밀어 넣는 것 같기도 하다. 흡사 성기가 되어 여자의 몸으로 들어간다. 에로스와 타나토스, 성과 죽음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중요한 주제다.

죽은 듯 눈을 감은, 마네킹과도 같은 여자의 얼굴은 산 자를 흉내 낸 죽은 얼굴, 인공의 화장술로 뒤덮인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다. 죽음이 끊임없이 저 얼굴, 삶을 유혹한다. 이 '유혹하는 죽음'은 청춘의 덧없음,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어갈 운명에 대해 말한다. 그것은 서양미술사에서 다루어지는 해골이 등장하는 '춤추는 죽음^{death macabre}'¹⁶과는 조금 다르다. 유사하지만 도덕적, 교훈적이기보다는 죽음의 도상을 즐기는 편이다. 죽음을 삶의 종결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을 대상화하는 것



입맞춤

캔버스에 아크릴, 각 96x96cm, 2002

이다. 어떤 면에서 죽음은 삶과 밀착해 있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거나 끔찍하도록 공포스러울 수 있다. 안창홍은 늘 죽음의 중의적 측면에 주목해왔는데 그에게 죽음은 끔찍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운 유혹으로도 나타난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자연사박물관>(193쪽)은 그가 주변에서 발견한 다양한 주점들을 수집, 봉인한 것을 그린 것이다. 작가에 의해 기록된 이 일상의 죽음은 잔혹한 비장미를 대신해 순수한 주점 자체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삶을 숭고하게 받아들이게 한다.¹⁷ 화려하고 관능적인 화장으로 가려진 얼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덧없는 치장과 요란한 껍질의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 빠로, 해골로 귀착된다. 저 해골을 이길 수 있는 얼굴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생명의 유한성을 통해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작가는 말한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죽음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나는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은 바로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달아나려고 하는 태도다.

— 사이먼 크리칠리, 『죽은 철학자들의 서』에서